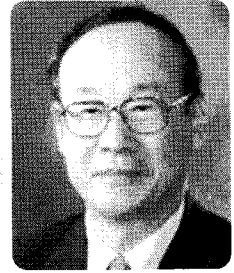


【특집 : 사료산업 50년 회고와 향후 산업방향 제시】

한국사료협회의 같이 한 소중한 지난 세월



맹 원 재

동덕여학단(동덕여자대학교) 이사장
건국대 명예교수,
前 건국대학교 총장
前 한국사료협회 R&D위원

■ 사료산업 연구개발회의의 자문위원 20년

학업을 끝내고 1976년에 귀국하여 1997년 다시 교환교수로 출국할 때 까지 근 2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한국사료협회와 인연을 맺어왔다.

돌이켜 보면 귀국 당시 현장 경험이 전혀 없던 나에게는 자문을 하기 보다는 오히려 배우는 것이 더 많은 귀중한 시간들이었다.

우리나라 사료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핵심에서 최선을 다하던 한국사료협회 임직원들과 사료생산 일선에서 현장 경험과 실무에 밝은 유능한 분들을 가까이 하면서 책에서 배우지 못한 산지식들을 직접 터득할 수 있었고 그들과 어울리면서 행복한 시간들이 참으로 많았다.

그들 모두는 원점에서부터 우리나라 사료산업을 발전시킨 주역들이었고 아직도 갈 길이 먼 우리나라 축산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이 사료산업이라는 인식하에 한국사료협회를 중심으로 하나같이 뭉쳐 사료산업 발전의 기틀을 쌓아간 보배로운 인재들이었다.

그러나 1998년 한 종합대학교의 최고 경영자의 자리에 앉으면서 사료업계와 거리를 두게 되어 이때부터 정들었던 많은 분들과도 소원해졌고 지금은 기억 속에 그때의 일들 그리고 함께 했던 그분들을 소중한 간직하고 있다.

■ 새 사육과 분석 연구실

한국사료협회가 서울역 인근의 좁은 공간에서 현재의 서초동 새 사육을 지어 이사할 때에는 내 자신이 새 집을 지어 이사가는 것처럼 기뻐다. 사료분석실로 예정된 맨 윗층의 도면을 놓고 실험대의 배치, 전기용량과 플러그 위치, 각종 분석기기의 배치 장소 등

을 꼼꼼히 점검했고 구입할 값비싼 분석기기를 선정하면서 내 실험실을 꾸미듯 기뻐서 밤잠을 설치곤 했다.

당시는 물론 새로 영입한 분석실 요원들은 매우 능력 있는 분들이었다. 밤잠을 설치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사료산업의 미래를 보는 듯했다.

따라서 그들의 사료분석 능력은 자타가 인정하는 세계 수준으로 발전되어 신뢰도에 추호의 의심도 없을 뿐 만 아니라 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도 실험실을 지키고 있는 그들이 대견스럽고 칭찬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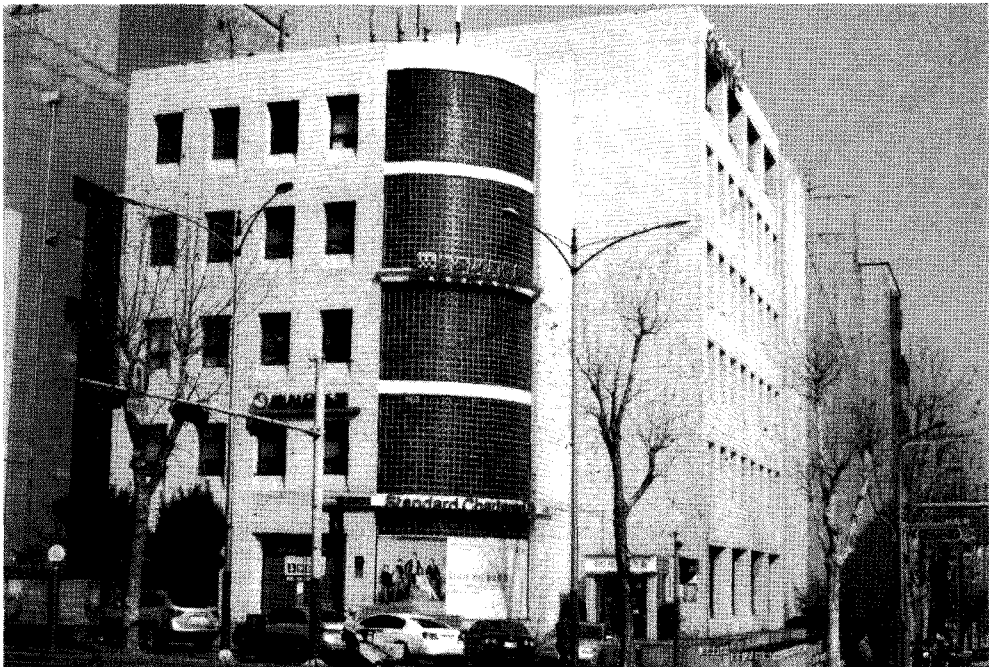
그리고 그들의 노력이 분석실만의 역할에서 벗어나 연구소로 발전시켰으며 앞으로 사료의 품질 향상과 더불어 우리나라 축산 발전의 핵심이 되리라 의심하지 않는다.

■ 사료생산 시설의 현대화

1980년 이전에는 선진국의 사료 생산시설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언제쯤 이런 수준의 시설과 제조기술을 보유할 수 있을까?’ 하는 부러움과 기죽은 표정을 지을 수 없었다.

그러나 1980년 이후 사료공장의 신축과 시설이 현대화되면서 우리의 사료 제조시설이 여타 선진국보다 우수하여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교수들에게 사료공장을 안내하며 눈에 띄지 않게 어깨를 으쓱대던 자부심이 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에도 뇌리에 생생히 남아있다.

이 심정은 대학을 졸업한 1965년도에 덴마크로 유학을 갔을 때 왠지 왜소해 보이고 기죽었던 내 자신이 꼭 20년이 지난 1985년



▲ 본회 서초동 사옥



도에 다시 덴마크를 방문했을 때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했던 내 모습과도 비교가 되었다.

사료 제조시설의 현대화로 사료의 품질은 크게 향상되었고 따라서 가축의 생산성도 향상되었다.

시설 현대화 과정에 담당자들의 밤낮을 가리지 않는 노력이 있었고 사료산업을 주도해 가는 많은 분들의 피와 땀이 자랑스러운 오늘을 있게 하였으며 이것이 선진 외국 어디를 가도 기죽지 않고 당당히 어깨를 견주는 자신감을 심어준 것이다.

■ 기술세미나

대학 최고 행정을 맡기 전까지 지난 20년간에 나는 100여회의 양축가 및 사료제조 기술자를 위한 세미나의 연사로 참여해 왔다. 한국사료협회가 지원한 수차례의 지방 순회 세미나에도 단골 연사로서 교재 준비와 발표에 최선을 다했다.

한국사료협회가 주관한 1970년도의 전국 순회 기술세미나는 주로 비단백태 질소화합물(NPN)의 효과적 이용 방안과 반추가축의 소화생리와 최적 사료에 대한 것이었고 1980년대에는 보리의 사료적 가치, 가축사료에 지방첨가와 생산성 향상, 그리고 1990년대에는 TMR사료의 제조와 급여 효과, 우



▲ 본회 R&D위원회 회의 모습

리나라 사료산업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이었으며, 이외에도 여러 주제의 기술 세미나를 주관하여 우리나라 축산기술 향상과 사료 제조기술 향상에 최선을 다한 한국사료협회의 역할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 앞으로의 과제

가축생산성의 핵심은 사료이다. 사료의 품질에 따라 가축의 생산성과 건강이 좌우된다. 지난 수십년 동안 사료 생산기술의 향상으로 사료의 품질 역시 크게 향상되었으나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다.

가축질병의 70~80%는 영양성 질병으로 인하여 야기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50여가지 영양소의 적정수준과 상호균형을 잘 맞추어 최상의 건강과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사료의 생산과 급여가 뒤따라야 한다.

현대인들은 이제 배불러 먹고자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 이외에도 면역력을 높여 건강한 삶과 각종 활동과 운동능력 향상을 누리하고자 한다.

식사만으로 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각종 영양 보충제 즉 생리 활성 기능을 가진 기능성 식품을 찾는다.

따라서 우리가 즐겨 먹는 축산물이 그 기능을 일부분만이라도 대신해 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단순히 단백질 공급기능 외에도 고기, 우유 및 계란 중에 오메가 3계 지방산 함량을 높여 건강에 큰 기여를 하는 사료가 개발되었듯이 기타 건강 증진 생리활성 물질이 포함된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사료를 제조하는 것도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다.

즉 예를 들면 반추동물의 우유 및 고기 중 CLA(conjugated linoleic acid) 함량 증진사료, 셀레늄(Se) 함량을 증진 시킬 수 있는 면역력 강화 사료, 기후 온실화의 주범인 메탄가스(CH₄) 생성을 줄이는 사료개발 등이다.

세계적으로 생활수준이 크게 향상된 오늘날 건강에 좋다면 가격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계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들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우리나라의 우수한 축산물을 세계 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찾아보아야 한다.

친환경 축산 및 품질 좋은 축산물이 경쟁의 우위를 차지할 수 있으며 이것은 친환경 사료 및 품질 좋은 사료의 생산에서 만이 가능하다. 또한 사료에 항생제의 사용이 금지된 현재 항생제 대체물질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한발과 홍수 등의 기상 이변으로 곡류생산이 급감한데다 세계 석유가격의 급등으로 인하여 곡류를 이용한 바이오 에너지 생산이 증가되고 있으며 중국의 축산물 소비증가로 곡물 수입량이 급증하여 세계 곡물 가격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거의 전량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의 사료 곡물 구매시장이 위협을 받고 있다.

따라서 안정적 사료 곡물 확보를 위한 해외시장 특히 동남아 시장 개척도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선결과제이다. 이러한 역할을 한국사료협회가 중심이 되어 해결해 가고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과감히 맞서서 축산업계를 이끌어 가는 리더십을 발휘하길 기대한다.

지난날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며 사료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온 저력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미래를 향한 알찬 정진과 발전을 기대한다. ☞